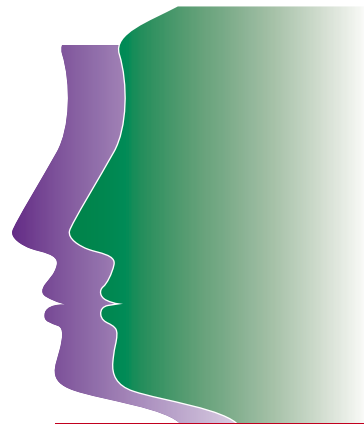


제27주년 UN세계평화의 날 기념

2008 Peace BAR Festival



Peace BAR Festival

Contents

취 지

엠블럼 및 로고

개 요

행사구성


종합일정

프로그램 제 27주년 UN 세계 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
경희공동체심포지움
경희학생포럼
경희자원봉사축제

2008 Peace BAR Festival

In Celebration of the 27th Anniversary of the UN International Day of Peace





2008 Peace BAR Festival

In Celebration of the 27th Anniversary
of the UN International Day of Peace

취 지

미래문명, 미래대학: 지식과 실천의 새로운 지평을 찾아서

대학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근대문명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해온 대학은 점차 창의력과 실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이 현실세계의 수행성 논리에 과도하게 집중한 결과입니다. 종합적 사유의 진작, 통합 지식 생산, 그리고 실천인 양성 기능을 상실한 채, 전문성 습득과 현실적 응력 배양에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문명전환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대학은 21세기 새 문명을 선도하는 패러다임을 창출해야 합니다. 이는 대학이 연구, 교육, 실천, 교류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새로운 학문세계를 개척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은 학문적 수월성을 제고하고 범학제적 노력을 기울이며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지구적 존엄을 고양하는 실천적 활동도 담아내야 합니다.

경희대학교는 <미래문명, 미래대학: 지식과 실천의 새로운 지평을 찾아서>를 주제로 제27주년 UN평화의 날 제정을 기념하는 <2008 Peace BAR Festival>을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며, 인간적으로 보람있는 (BAR - spiritually Beautiful, materially Affluent, humanly Rewarding) 지구촌 인류사회를 위해, 대학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열린 담론의 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엠블럼 및 로고

■ 엠블럼



■ 로고

*B*eautiful

*A*ffluent

*R*ewarding

개요

Reinventing Universality for the 21st Century :
Beyond Freedom and Equality

2008 Peace BAR Festival은 2008년 11월 5일 (수)부터 11월 7일 (금)까지 경희대학교와 신라호텔에서 개최되며, UN관계자, 국내외 학자, 국내외 시민단체, 국내외 대학생, 일반 참가자 등이 참여한다.

행 사 명	제 27주년 UN 세계평화의 날 기념 2008 Peace BAR Festival
주 제	미래문명, 미래대학 : 지식과 실천의 새로운 지평을 찾아서 Future Civilization, Future University: A New Horizon for Knowledge and Praxis
일 시	2008년 11월 5 (수) ~ 7일 (금)
장 소	경희대학교, 신라호텔
참 가 대 상	UN 관계자, 국내외 학자, 국내외 시민단체, 국내외 대학생, 일반 참가자
주 최 / 주 관	경희대학교 / 미래문명원
후 원	조선일보

행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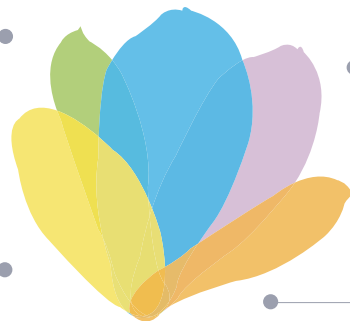
2008 Peace BAR Festival은 국제학술회의, 경희공동체심포지움, 경희학생포럼, 경희자원봉사축제로 구성된다.

제27주년 UN 세계 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
- 미래문명, 미래대학: 지식과 실천의 새로운 지평을 찾아서

경희공동체심포지움
- 대학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대학문화

경희자원봉사축제
- 나눔과 기여, 지구적 실천의 모색

경희학생포럼
- 21세기 글로벌 이슈와 세계 대학청년의 역할



2008 Peace BAR Festival



종합일정

일 시		행 사 명		장 소
11월 5일 (수)	10:00 ~ 12:00	경희공동체심포지움		경희대 국제캠퍼스 피스홀
	10:00 ~ 12:00	경희자원봉사축제		경희대 국제캠퍼스 르네상스홀
	13:00 ~ 17:00	경희학생포럼		경희대 국제캠퍼스 피스홀
11월 6일 (목)	10:00 ~ 12:30	국제학술회의	개회식 및 전체회의 1	신라호텔 영빈관
	14:00 ~ 16:30		전체회의 2	
11월 7일 (금)	10:00 ~ 12:30		전체회의 3	신라호텔 영빈관
	14:00 ~ 18:00		특별전체회의	

프로그램

1. 제 27주년 UN 세계 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

- 미래문명, 미래대학: 지식과 실천의 새로운 지평을 찾아서

2. 경희공동체심포지움

- 대학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대학문화

3. 경희학생포럼

- 21세기 글로벌 이슈와 세계 대학청년의 역할

4. 경희자원봉사축제

- 나눔과 기여, 지구적 실천의 모색



UNESCO PRIZE FOR PEACE EDUCATION
(1993)

1. 제27주년 UN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

주 제 미래문명, 미래대학 : 지식과 실천의 새로운 지평을 찾아서

취 지 대학은 존재하는가? 인류에게 풍요로운 삶을 가능케 한 근대문명의 핵심엔 새로운 지식을 제공한 대학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의 대학은 문명창달의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전문지식 생산과 직장인 양성 기능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대학의 소극적 기능은 개인의 생존에 치우친 편중된 사고를 낳는다. 사회적으로는 경쟁과 배제 그리고 지배에 익숙한 공동체의 파편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 대학은 지식 생산과 교육적 실천의 새로운 틀을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학은 인류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이념적 기초를 토대로 전지구적 차원의 생태와 환경에 대한 상생과 성찰의 지식과 실천을 증대해야 한다. 21세기의 대학 교육은 분과 학문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협력에 기초해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대학의 실천적 사명과 역할 또한 전환되어야 한다. 대학을 중심으로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사회의 여러 섹터들이 함께 지구공동체의 의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상호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경희대학교는 <미래 문명, 미래 대학 : 지식과 실천의 새로운 지평을 찾아서>를 주제로 UN평화의 날 제정 제27주년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정립하고 바람직한 미래 문명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일 시 2008년 11월 6일 (목) ~ 7일 (금)

장 소 신라호텔

주 관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프로그램

1. 제 27주년 UN 세계 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

개회식

2008년 11월 6일 (목) 10:00 ~ 10:10 / 신라호텔 영빈관

사 회 - 송 재 룡 (경희대학교 교수)

개회선언 - 김 여 수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원장)

환 영 사 - 조 인 원 (경희대학교 총장)



전체회의 1 전환 속의 근대성

2008년 11월 6일 (목) 10:10 ~ 12:30 / 신라호텔 영빈관

우리는 지금 문명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놓여있다. 과학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전 지구적인 상호연관성과 소통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있으며, 거스를 수 없는 지구화의 조류 속에서 인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과 전망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문명사적 전환은 전통적 의미의 근대성이 더 이상 현대 사회를 설명하는 적실한 개념 틀이 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 한계는 미래문명에 구현될 새로운 근대성의 양상에 대한 근원적 성찰을 요구한다. 이 세션에서는 전환의 과정에 있는 근대성의 주요 양상들을 반성적으로 고찰하면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유와 실천의 기본 방향을 모색한다.

사 회 - 박 수 헌 (경희대학교 교수, 정치학)

발 표 - Anthony McGrew (Southampton대학교 교수, 정치학)

장 회 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물리학)

Keith Tester (Hull대학교 교수, 사회학)

토 론 - 전 현 상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철학)

하 제 원 (경희대학교 교수, 철학)

이 동 수 (경희대학교 교수, 정치학)

프로그램

1. 제 27주년 UN 세계 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

전체회의 2 지식과 대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2008년 11월 6일 (목) 14:00 ~ 16:30 / 신라호텔 영빈관

오늘날 대학 교육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 요구는 지식 패러다임의 축이 이른바 자본주의적 수행성의 논리에 집착함으로써, 대학교육의 목표가 방법위주의 기능적 지식의 생산에 치중해 온 것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비롯된다. 21세기의 대학교육은 분과 학문의 경계를 넘어,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통합적 접근을 통해 탐구 정신을 자극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 세션에서는 이 전환적 추세를 주목하면서 오늘날 대학 교육의 핵심 기능과 역할로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시민적 참여와 연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사 회 - 이 삼 열 (UNESCO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발 표 - Ulrich Teichler (Kassel대학교 교수, 교육학)

Manuel M. Escudero (UN Global Compact, 경제학)

Jerome Binde (UNESCO 여측국장, 사회학)

토 론 - Philip G. Altbach (Boston College 교수, 교육학)

Terri Kim (Brunel대학교 교수, 교육학)

송 재 룡 (경희대학교 교수, 사회학)

전체회의 3 새로운 대학 - 지식, 실천, 협력

2008년 11월 7일 (금) 10:00 ~ 12:30 / 신라호텔 영빈관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하면서 국내 및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대학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대학은 국내사회와 지구공동체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이념과 방향을 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천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 세션에서는 대학이 전통적으로 수행해왔던 연구와 교육에 더하여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대학의 위상과 역할을 모색하고, 지식기반 사회의 핵심 주제로서 대학이 새롭게 담당해야 할 사회적 사명과 역할을 논의한다.

사 회 - 김 홍 우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명예원장)

발 표 - Philip G. Altbach (Boston College 교수, 교육학)

김 혜 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철학)

Remesh Thakur (Balsille 국제대학원 원장)

토 론 - 이 병 식 (연세대학교 교수, 교육학)

Ulrich Teichler (Kassel대학교 교수, 교육학)

김 현 (경희대학교 교수, 정치학)



프로그램

1. 제 27주년 UN 세계 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

특별전체회의 라운드테이블 : 세계시민포럼

2008년 11월 7일 (금) 14:00 ~ 18:00 / 신라호텔 영빈관

경희대학교와 UN 경제사회국(DESА)은 2009년 세계시민포럼(World Civic Forum:WCF)을 공동으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WCF는 UN과 대학사회가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지구사회의 공동 관심사인 인류가치와 지구공영 그리고 시민참여와 관련된 의제를 논의하는 글로벌 포럼이다. 예컨대, 평화, 에너지, 기후변화, 정의, 식량 등 전 인류에게 닥친 긴급한 이슈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UN과 대학사회가 함께하는 이 포럼에는 세계시민사회, 국제기구, 정부, 기업, 언론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것이다. 향후 이 포럼의 네트워크는 지구적 의제와 미래문명에 관한 교육·연구·실천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지구협력체제로 확대될 것이다. 이를 통해 WCF는 인류사회의 보편가치와 문명적 현안에 대한 대화와 소통, 제휴와 협력, 변화와 창조를 모색하면서, 21세기 지구화시대의 대학교육의 사회적 책임과 지구적 존엄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 특별 세션에서는 대학, UN, 그리고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저명인사들의 기초발제와 WCF 운영위원회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WCF의 철학과 기초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사 회 - 김 여 수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원장)

발 제 - ① 시민사회 관점에서 본 WCF

Liberato C. Bautista (UN NGO협의체 의장)

② UN 관점에서 본 WCF

Haiyan Qian (UN 공공행정 및 개발관리처장)

③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WCF

Patricia A. Sto. Tomas (EROPA 사무총장)

④ WCF 배경 설명

경희대학교 WCF 운영 위원회

⑤ 토론

- 참여자

- Philip G. Altbach
(Boston College 교수, 교육학)
- Liberato C. Bautista
(UN NGO협의체 의장)
- Jerome Binde
(UNESCO 예측국장, 사회학)
- Manuel M. Escudero
(UN Global Compact, 경제학)
- Terri Kim
(Brunel대학교 교수, 교육학)
- Anthony McGrew
(Southampton대학교 교수, 정치학)
- Haiyan Qian
(UN 공공행정 및 개발관리처장)
- Ulrich Teichler
(Kassel대학교 교수, 교육학)
- Keith Tester
(Hull대학교 교수, 사회학)
- Remesh Thakur
(Balsille 국제대학원 원장)
- Sto Tomas
(EROPA 사무총장)
- 김 운 호
(WCF 홍보 위원장)
- 김 의 영
(WCF 운영 위원장)
- 김 현
(경희대학교 교수, 정치학)
- 김 혜 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철학)
- 김 흥 우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박 수 헌
(경희대학교 교수, 정치학)
- 송 재 룡
(경희대학교 교수, 사회학)
- 이 병 식
(연세대학교 교수, 교육학)
- 이 삼 열
(UNESCO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임 성 호
(WCF 회의구성 위원장)
- 장 회 익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물리학)
- 전 현 상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철학)
- 하 제 원
(경희대학교 교수, 철학)
- 한 균 태
(WCF 홍보 위원장)



주 제 대학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대학문화

취 지 경희대학교는 2009년 개교 60주년을 앞두고 새 경희 창조, 제2의 도약이란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경희가 추구하는 미래는 경쟁의 논리를 넘어 타자와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모색하는 대학공동체의 미래이다. 2008 Peace BAR Festival 경희공동체 심포지움에서는 경희공동체 구성원이 한 자리에 모여 대학문화의 현재를 진단하고, 21세기 대학이 지향할 바람직한 대학문화의 모델과 그 실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구 성 사 회 : 유 영 학 교수 (교육대학원)

1부 - 미래 대학과 대학공동체

- 21세기 고등교육의 새로운 길과 교육·연구·실천의 통합 - 조 영 하 교수 (교육대학원)
- 권한과 책임의 행정문화와 자율 운영체계의 정착 - 장 백 기 (사무처)
- 대학생이 바라본 대학문화 - 이 비 치 (관광대학 3학년)

2부 - 경희공동체를 위한 제언

- 교수협의회
- 총학생회 (서울 및 국제캠퍼스)
- 노동조합
- 총동문회

3부 - 종합토론

일 시 2008년 11월 5일 (수) 10:00 ~ 12:00

장 소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피스홀

주 관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3. 경희학생포럼

주 제 21세기 글로벌 이슈와 세계 대학청년의 역할

취 지 21세기 인류는 에너지 고갈, 기후변화, 식량 부족, 빈곤, 질병 등 전지구적 문제로 인해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받고 있다. 경희대학교는 2009년 5월 UN 경제사회국(DESA)과 공동으로 세계시민포럼(WCF)을 개최한다. WCF는 평화, 정의,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의제를 다루는 글로벌 포럼이다. 이번 경희학생포럼은 WCF와 병행하여 개최할 세계시민학생포럼(WCYF)을 준비하는 예비회의로서 21세기 글로벌 이슈와 세계 대학 청년의 역할을 논의한다.

구 성 기조강연 : Liberato C. Bautista (UN NGO협약체 의장)

전체회의 1 : 지구시민사회의 도래와 글로벌 이슈

사 회 : 장 준 혁 (평화복지대학원 4기)

- 발 표 : ① 세계질서의 변화와 지구시민사회 - 신 재 은 (국제대학원 2기)
 ② 글로벌 이슈와 국제기구 - 김 의 연 (국제·경영대학 2학년)
 ③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NGO의 역할 - 최 연 재 (정경대학 4학년)

전체회의 2 :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세계 대학생 실천 방안

사 회 : 박 애 린 (NGO대학원 2기)

- 발 표 : ① 평화와 공영의 지구시민사회와 미래 대학 - 오 혜 원 (한외과대학 1학년)
 ② 글로벌 이슈와 세계 대학생의 역할 - 김 미 경 (국제·경영대학 3학년)
 ③ 글로벌 이슈 해결과 UN - 정 성 은 (영어학부 4학년)

일 시 2008년 11월 5일 (수) 13:00 ~ 17:00

장 소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피스홀

주 관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주 제 나눔과 기여, 지구적 실천의 모색

취 지 창학 이래 인류사회를 위한 기여와 지구적 실천에 앞장서 온 경희대학교는 단순한 사회봉사를 넘어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체계적 사회공헌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대학의 전문성과 다양한 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나눔과 기여, 지구적 실천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제기구, 정부, 시민단체, 기업, 언론 등 국내·외의 다양한 파트너와 교류협력을 통해 글로벌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실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구 성 사 회 : 김 종 규 학생지원처장 (서울캠퍼스)

1부 2008 경희 사회공헌 콜로키움 (라운드테이블)

- 기조발제 : 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사회적 책임 - 정 진 영 교수 (국제·경영대학)
- 발 표 : 경희 사회공헌 활동의 현황과 발전 방안 - 최 희 섭 (미래문명원 사회공헌팀장)
- 토 론 : 경희사회봉사단, 나누리, 한마음봉사단, 네오플러스 봉사단 등

2부 2008 경희 나눔과 기여의 축제

- 2008 경희 사회봉사 우수사례 발표
- 문화공연 및 영상전시

일 시 2008년 11월 5일 (수) 10:00 ~ 12:00

장 소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르네상스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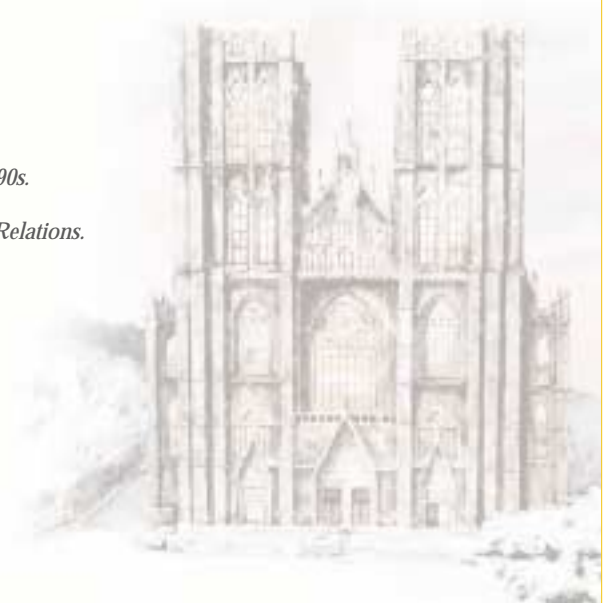
주 관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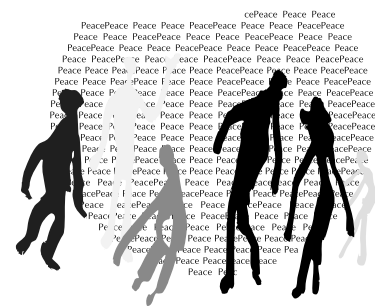


● UN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 소개

경희대학교는 1981년 UN 제36차 총회에서 제정된 'UN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국제학술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1982년 시작된 이래 2008년 현재 제27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맞이하고 있다. 국제학술회의의 연도별 주제는 다음과 같다.

- 1982 *Crisis and Peace in Contemporary World.*
- 1983 *World Peace: Is It Possible?*
- 1984 *World Peace Through the UN.*
- 1985 *U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 1986 *Search for Causes of International Conflicts and Ways to Their Solutions.*
- 1987 *The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Korean Peninsula in the Late 1980s.*
- 1988 *The North-East Asian Era and the Roles of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21st Century.*
- 1989 *Peace Beyond the East-West Conflict: Northeast Asian Security and World Peace in the 1990s.*
- 1990 *The Search for a New World Peace Order with Reference to the Changes in the East-West Relations.*
- 1991 *New World Order: The Post-Ideological World in the 21st Century.*
- 1992 *Democracy and New International Order in the 21st Century.*
- 1993 *Peace in the Northeast Asia: Toward Greater Regional Cooperation.*
- 1994 *Restoration of Morality and Humanity.*
- 1995 *Tolerance, Restoration of Morality, and Humanity.*





○ UN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 소개

- 1996 *Peace Strategies for Global Community and the Role of the UN in the 21st Century.*
 - 1997 *Visions and Realities in the 21st Century - The Role of East Asia.*
 - 1998 *Global Visions Toward the Next Millennium: Modern Civilization and Beyond.*
 - 1999 *Will World Peace be Achievable in the 21st Century?*
 - 2000 *Global Governance in the 21st Century.*
 - 2001 *Toward a Global Common Society Through Dialogue Among Civilizations.*
 - 2002 *A Global Common Society Through Pax UN.*
 - 2003 *Building a Global Common Society through Neo-Renaissance.*
 - 2004 *Urgent Tasks for Peace: Overcoming Terrorism.*
 - 2005 *After Ideology: The 21st Century Talks*
 - 2006 *Reinventing Universality for the 21st Century: Beyond Freedom and Equality*
 - 2007 *Transformative Challenges: In Search of New Humanity and Community*
-

